

다산포럼

사회적 상속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외국에 나가면, 대학·도서관·박물관을 주로 방문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언제나 건물의 입구에 적어놓은 사람들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기부자들 명단이다. 그 지역사회의 단체나 개인들이 이런 공공적인 일에 기여 기부를 했고, 오늘 당신들은 이들의 기여 덕분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건물의 명칭도 이들 개인 기부자들의 이름을 딴 곳이 많다.

그런데 한국의 큰 대학이나 도서관 건물은 모두 애초 설립 당시 재단이나 국가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지은 것들이다. 건물의 명칭도 재벌기업이나 기업가의 호를 딴 것이 많다. 물론 재벌 대기업들도 사회공헌의 큰 뜻을 갖고 그런 기부를 했지만 과연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을 기

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거부들이다. 워렌 버핏은 “사회의 자원이 부의 귀족왕조로 불리게 되는 식으로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큰 부자들은 작은 부자들 ‘사회의 자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경향이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가 15억원으로 뛰면 차액 10억원은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도로·지하철·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것은 국가이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대기업이 10년 만에 10배로 몸집을 불렀다면 그것은 기업주의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지금도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는 투자 지원, 환율, 면세, R&D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의 공동 기여물인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대기업을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극히 부정당한 일이다. 그것은 불법이 아닐는지 모르나, 매우 부당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갑부들이 재산

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도덕심이 넘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법이자 상식이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75.6%는 개인 기부라 하는데, 한국에서 고액 개인 기부는 아직도 신문에 날 정도로 드물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미국의 기부자들은 주로 대학·도서관·의료기관·박물관 등 사회의 인프라, 그 사회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에 기부를 한다. 즉 건물 등 외형적인 것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다. 기부금품 모금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국제구호가 대부분이다. 기부금 모금단체도 종교단체가 대부분(66%)이고 교육단체는 6%에 불과하다.

한국인들은 재해나 불운한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신도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베풀 대상이 줄어드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해 일하는 세력을 키워 주는 일이다.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제에 연구하고, 더 많은 언론인들이 정치가들이 그 일과 씨름해야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자선보다는 교육, 사회운동,

정책과 정치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김낙년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산에서 상속의 기여도는 1980년대 27%에서 2000년도에는 42%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런데 현 정부는 기업 계승자 면세 범위를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효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5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한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가업승계 차원에서 수익, 혹은 수익역외대 정도의 가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정의하지 않다. 그러나 500억원 상속을 과연 가업승계로 볼 수 있을까? 기부를 장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부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국가가 나선 꼴이다. 상속세 제도가 되면 ‘지옥과 같은 한국’(heo신선)은 더 심각한 신분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한국의 몇몇 뜻있는 기업가, 부자들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적 상속’을 실천하는 훌륭한 이야기도 있다. 사회적 상속은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 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그들의 기부 문화 즉 사회적 상속 관행을 보면 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지 알 수 있다.

청춘 특·특

우연한 기회가 새로운 꿈으로



정유정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3학년

올랐다. 그래서 공연관련학과인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를 선택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에서 뮤지컬과 축제, 콘서트 등 공연분야 기획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기획자는 기획력은 물론, 글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했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내 신문·방송국인 ‘통합뉴스센터’에서 활동하게 됐다.

처음에는 신문, 영상, 라디오까지 다방면의 일을 모두 배워야 했다. 정해진 시간을 묵묵히 견고 지켜야 하는 ‘데드라인’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전 신문보다는 잡지를, 뉴스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했던 내가, 막상 직접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기성 언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관심은 흥미로 바뀌었고 선배들의 가르침 하나하나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고, 능력을 키워 선배들에게 ‘예뻐’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선배들을 괴롭혀 부족함을 채워갔다.

그렇게 꾸준히 달려오니 수습기자를 거쳐, 정기자, 지금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역할을 다하고 있다. 팀장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

다. 스포츠축제, 컨퍼런스 등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줬다.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더욱 진절하듯 다가간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웠다.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감도 더해졌다. 결국, 작은 시작이 나를 점차 변화시켜준 것이다.

미디어영상공연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학생기자의 일상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생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확실히 재미있었다. 본인들과는 달리 바쁜 삶을 사는 나를 보며 주변의 친구들은 묻는다. “그만 두는 게 어때?”, “언제 까지 할 거야?” 이에 대한 나의 답은 항상 똑같다. “너무 재밌어서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나의 꿈은 통합뉴스센터라는 또 다른 경험으로 조금씩 바뀌게 됐다.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 인생의 목표, 꿈을 일찍이 찾아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나, 점차 그 목표가 바뀌거나 선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아직도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다. 내 꿈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은 “과연 이 일이 나의 길인가?”라는 질문에,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볼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도전해 나의 길을 찾는 것. 진정한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검거당 말고 시작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 꿈을 일찍 이루는 것도 좋지만, 죽기 직전 꿈을 이룬 사람도 성공했다는 말이 있다. ‘꿈을 이뤄라’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모든 일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꿈은 끊임없이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일단 많은 경험을 쌓아야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하는 일이 때론 귀찮고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일, 내가 찾아 나선 일 등 모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분명 나중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생기는 것.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연이 또 어떤 인연으로 새롭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명심하자. 우연한 기회가 새로운 꿈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기고

행정의 살아있는 증인 ‘공공기록’



문형석
전남도 정보화담당관

러다임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특히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기록관 시설 확충,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등의 주요 성과와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기록연구사를 채용해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전남도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록물의 평가·폐기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일지라도 기록연구사의 평가·심의 없이는 단 한 건도 폐기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종이기록물의 경우, 한 번 폐기되면 다시는 복구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평가·심의를 있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전남도는 국가기

록원과 협의해 2009년부터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가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를 모두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생애주기가 다하는 폐기 전 단계에서 ‘보존’에 초점을 둔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는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1만 7155권 중 2697권이 보존기간 재확정 등으로 폐기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남도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의 활용 및 기록정보서비스의 촉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이관된 기록물을 5년 주기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리과 및 직·사업소에 대한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기관이며, 이제 그 설립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

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역할은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인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읍·군에서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설치될 추진중이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의 ‘지방자치화’를 위해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 각 시·군의 영구기록물 보존·관리를 통한 서고 부족 문제 해결,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의 수집·보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자원으로 가공·서비스하는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기록문화 정착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역사의 주체인 내·외부 모두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 전남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社說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업 비리 철저히 수사할

오랜만에 감사 한번 제대로 한 듯 싶다.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부실당어리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도시공사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가격 협상도 없이 마구 사들여 놓고 실제로는 집을 비워 놓는 등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5~30일 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도시공사 직원 2명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으로 시 분청 근무자 7명 훈계 등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무엇보다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주고 싶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수가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로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에 비리가 개입됐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바로 서민들을 울리는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도시공사는 2011~2013년 이 사업에 참여해 514억 원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샀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매입한 곳도 있다. 매입선정 위원회는 현지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일부 심사위원은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한 예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매입 과정에서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의 부탁을 받고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집중 사는 등 비위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역 중고생 학습부진 대책 마련 서둘러야

광주·전남 중고교의 ‘학습부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체적인 학력 수준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비율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는 4.1%, 전남은 4.2%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생 가운데 기초적인 학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중학생의 실태는 예상외로 아니다. 광주지역 중3의 미달 등급 비율은 5.2%로 전국에서 전북을 제외하곤 가장 높았다. 전남 역시 4.9%나 돼 엇비슷하다.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 고교까지 학력 미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그동안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연간 수습억 원을 들

여왔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관련 시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교육청은 그동안의 노력이 교육 현장과 부합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울산(중·고교 1.0%)과 대구(1.5%)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울산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부진한 학생을 돕는 ‘학력 증진 친구제’와 외고·과학교 학생들과의 멘토·멘티제를 실시해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대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코칭과 전문기관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높으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다는 통계가 있다. EBS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당국은 학습 부진으로 인한 공부 낙오자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자리한 운조루(雲鳥樓)를 찾았다. 그 유명한 뒤주는 고택 사랑채에서 안채로 이어지는 헛간에 놓여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나무살뚝 아래쪽에는 한자 네 글자가 쓰여 있다. 타인능해(他人能解). ‘누구나 쓸뚝주를 열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이 집을 지은 유이주(1726~1797) 선생 때부터 200여 년을 이어 내려오는 나눔 정신이 깃들여 있다. 아름드리 흉나무(높이 114cm·지름 66cm)를

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곳에 지금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금가락지가 떨어진 ‘금환락지(金環落地)’명당 터여서가 아니다. 고택의 전기는 바로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 정신에 있다. 지금은 빈 쌀뚝이지만 어려웠던 조선 후기 때 한 양반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맡았을 이 웅변하고 있다.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소외된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타인능해’의 정신이 그리운 연말이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씩

타인능해(他人能解)

을 받게 된다. 심시일반(十匙一飯)은 서로 어려운 때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수년째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떤 이는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크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살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기꺼이 언타한 창 되느 것”(안도현 ‘연탄 한 장’)이란 시구가 어느 때보다 큰 울림을 준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50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